

유해진 × 김희선 '달짝지근' 멜로



유해진(왼쪽)과 김희선.

영화 '달짝지근해:7510' 다음달 15일 개봉
유해진, 데뷔 첫 로맨스...과자 연구원 역
김희선, 발랄 직진녀로 20년만에 영화 복귀

다양한 장르와 배역을 소화해온 배우 유해진이 데뷔 후 처음으로 로맨스 연기에 도전했다. 다음 달 15일 개봉하는 이한 감독의 코미디 영화 '달짝지근해: 7510' (이하 '달짝지근해')에서다.

유해진은 최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주인공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변화하는 과정이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연기에서 역점을 둔 부분을 설명했다.

그가 맡은 역은 과거밖에 모르는 천재적인 제과 연구원 '치호'다. 집, 차, 연구소만 오가며 틀에 박힌 생활을 하다가 콜센터 직원 '일영'을 만나면서 인생의 맛이 더 달콤하게 바뀌기 시작한다.

연애에 있어서 후진은 없는 발랄한 여자 일영은 김희선이 연기했다.

김희선은 "배우가 아니라 그냥 팬의 입장에서 유해진씨의 첫 코믹 로맨스가 무척 궁금했다. 그런데 그 상대역이 저라고 하니 작품이 탐났다"며 웃었다.

유해진은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부터 일영 역을 김희선씨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희선씨에게 잘딱같은 배역일 것 같았는데 (촬영해보니)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희선이 총무로써 복귀하는 것은 2003년 '화성으로 간 사나이' 이후 꼭 20년 만이다.

그는 "(드라마와 비교해) 영화는 좀 더 색다른 기분"이라면서 "오랜만에 김희선이 영화를 했는데, 과연 어떨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서 훨씬 떨린다"고 소회를 전했다.

'달짝지근해'에는 치호와 일영 외에도 뚜렷한 개성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캐릭터가 많이 등장한다.

성실한 동생 치호에게서 돈을 얻어다 쓰는 반절달 같은 모습의 '석호' (차인표 분), 자신 감에 차 있지만 보는 사람에게는 느끼함을 주는 제과 회사 사장 '병훈' (진선규), 화투를 좋아하고 예측불가능한 여자 은숙(한선화) 등이다.

차인표는 "유해진씨와 김희선씨가 나오고 이한 감독이 연출하는 작품이라는 말에 3초 만에 출연 제의를 수락했다"며 "석호는 매나, 연치, 눈치가 없는, 없는 게 많은 사람"이라고 배역을 소개했다.

진선규는 "병훈은 지금까지 한 번도 표현해 보지 못한 느낌의 캐릭터였다. 첫 촬영부터 감독에게 '이게 맞아요, 이 정도면 느끼한가'

요' 물어보곤 했다"며 웃었다.

이 감독은 '달짝지근해'를 만들기 위해 때때로 이 영화를 철저히 '캐릭터 영화'로 구상했다고 한다. 캐릭터의 매력이 보여야만 코믹함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해서다.

그는 "관객들도 영화 속 캐릭터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신 있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한국 대작이 잇따라 개봉하는 여름 시장에서도 '달짝지근해'의 경쟁력을 자신했다. 오는 26일 류승완 감독의 '밀수'를 시작으로 김용화 감독 '더 문', 김성훈 감독 '비공식작전', 임태화 감독 '콘크리트 유토피아', 정우성 감독 '보호자' 등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작품들이 나온다.

이 감독은 "(개봉예정작 중에서) '달짝지근해'는 유일하게 밝고 따뜻한 작품이고, 재미와 공감 두 가지를 동시에 담았다"고 말했다.

유해진도 "저는 우리 작품이 '안 블록버스터'여서 오히려 좋다"며 "(여름에 나오는 영화들이) 모두 블록버스터인데, '달짝지근해'는 아기가자한 얘기를 하는 재밌는 영화"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SNS 그린 드라마 세계 흥했다

넷플릭스 '셀러브리티' 시청시간 1위...ENA '행복배틀' 시청률 상승



'셀러브리티'



'행복배틀'

소셜미디어(SNS)에서 수십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의 경쟁과 민낯을 그린 '셀러브리티', SNS에서 각자의 행복을 자랑하고 서로 시기하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다룬 '행복배틀'.

SNS의 파급력과 부작용에 초점을 맞춘 드라마가 시청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방송가에 따르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셀러브리티'는 지난달 30일 공개된 이후 2주 연속으로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시청 시간 10위 이내에 이름을 올렸다. 공개 첫 주 8위에 오른 데 이어 둘째 주에는 시청 시간 1위를 기록했다.

ENA 드라마 '행복배틀'은 후반부로 갈수록 시청률이 오르고 있다. 5월 말 첫 방송 시청률은 0.7%에 그쳤으나 가장 최근 방송된 14회 시청률은 자체 최고인 2.8%를 기록했다. ENA가 동시간대에 방송했던 '보라! 데보라'의 자체 최고 시청률 1.2%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셀러브리티'는 SNS에서 수십만 또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주인공 서아리(박규영 분)가 우연한 계기로 인플루언서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후 그 세계에 뛰어들어 백만 명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됐다가 이내 몰락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룬다.

'행복배틀' 역시 SNS를 전면에 내세웠다.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같은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 SNS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자랑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과정을 다뤘다.

인플루언서이자 두 딸의 엄마인 오유진(박효주)은 수시로 연출된 사진을 SNS에 올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자랑한다. 같은 아파트 주민들은 SNS에선 둘도 없는 친한 사이지만, 실상은 서로 시기하고 헐뜯기 바쁘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출연하는 뮤지컬을 공연하겠다고 발표하자 엄마들은 서로 자기 아이가 주인공을 차지하게 하려고 경쟁한다. 드라마는 SNS를 통한 일상의 공유가 어떻게 시기심과 갈등을 일으키는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연합뉴스

열혈 기자의 연쇄살인범 인터뷰

조여정-정성일 '인터뷰' 주연 발탁...내년 개봉

배우 조여정과 정성일이 각각 열혈 기자와 연쇄살인범으로 변신한다.

14일 배급사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에 따르면 조여정과 정성일은 스릴러 영화 '인터뷰'의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이 영화는 내년 개봉을 목표로 오는 17일 촬영에 들어간다.

'인터뷰'에서 조여정은 특종에 목마른 언론사 사회부 기자 '선주' 역을, 정성일은 열한 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영훈' 역을 맡았다. 영훈이 선주에게 특별한 인터뷰를 제안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기생충' (2019), '인간중독' (2014), '표적' (2014) 등에서 다양한 배역을 소화한 조여정은



조여정

정성일

"영화 '인터뷰'는 기자와 연쇄살인범의 인터뷰 속에 밀도 있는 스토리가 매력"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BTS 정국, K팝 솔로 가수 새 역사

'세븐'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1위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사진)의 솔로 데뷔곡 '세븐' (SEVEN)이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데일리 톱 송 글로벌'에서 1위로 진입했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16일 밝혔다. 스포티파이의 최신 차트에 따르면 '세븐'은 1599만5378회 스트리밍돼 곧바로 1위에 올랐다.

빅히트뮤직은 "한국 솔로 가수 사상 스포티파이

이 글로벌 차트에 진입하며 1위로 직행한 것은 정국이 처음"이라며 "'세븐'의 스트리밍 횟수는 '톱 송 글로벌' 신규 진입곡이 기록한 역대 최대치"라고 소개했다.

'세븐'의 인스트루멘탈(Instrumental)은 이 차트 65위에 올랐다. 정국이 기존에 발표한 솔로곡 '스틸 위드 유' (Still With You)와 '마이 유' (My You)는 54위와 113위를 각각 기록했다.



버전), 2위(익스플로시브 버전), 4위(인스트루멘탈)를 차지했다.

'세븐'은 이 밖에도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톱 100' 차트 1위를 기록하고, 106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정상에 오르는 등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오리콘 '데일리 디지털 싱글 랭킹'에서도 1위(클린

/연합뉴스

직항로 개설 카페리여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동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30분 소요



☎(유)신진해운 061)244-0522